

종합

# 폭설·혹한 농수산물값 뚝뚝

### 시금치 15kg짜리 1박스 6만5천원 86% ↑

### 참조기·산낙지 등 수산물 가격도 급등세

기습 한파와 폭설의 영향으로 서민 식탁의 단골메뉴이자 김밥 필수 재료인 시금치 값이 급등하고 있다. 반찬류인 가지, 오이의 가격은 물론 수산물 가격도 뛰고 있다.

13일 신안비급 농협에 따르면 현재 신선한 현지에서 출하된 시금치 1박스(15kg)의 도매 평균 가격이 6만5천원으로, 지난해 3만5천원에 비해 86%나 올랐다.

특히 비급 시금치는 흉작으로 출하량이 작년의 40%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폭설의 영향으로 유통차질이 빚어져 대형마트들은 판매 물량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성수기 신안지역에서 시금치 25만 박스를 출하했으나, 올해 출하량은 9만 박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거래되는 일반 시금

치(4kg)의 경우 지난 5일 도매가 평균 1만원에 거래됐으나, 13일 현재 1만2천원으로 20% 가격이 올랐다.

가지(4kg)는 지난주 2만3천원에서 무려 3만1천원으로 35% 상승했으며, 풋고추(10kg)도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7.5% 인상됐다.

오이(20kg)는 4만1천원→4만4천원, 생강(20kg)은 8만3천원→9만5천원으로 동반 상승했다.

김장 성수기가 끝나 수요가 감소한 무와 배추의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내렸다.

폭설로 어린이들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물량이 달린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협 광주공판장에 따르면 13일 현재 경매된 바지락(20kg)의 가격은 7만5천원으로, 지난주 7만원에서 5천원(7%) 인상됐다. 참조기(23kg 1상자)는 10만원에서 11만원, 산낙지(1마리)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수협 광주공판장 관계자는 "폭설 등 악천후로 어린이들이 조업에 나서지 않아 산낙지, 바지락, 참조기 등 일부 성수 품목의 경우 물량이 급감했다"며 "수산물의 경우 도매가의 5~10% 가량 유통마진이 붙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부담이 훨씬 클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방선거 '광주 희망과 대안' '광주 희망과 대안' 창립준비위원회는 13일 오후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기초' 광주 희망과 대안'을 구성해 적극적인 시민정치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평동 2산단 지원시설부지 37만㎡

## 공장·물류용지 전환 추진

광주시가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3차 분양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평동 1·2차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나 물류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시설부지 미분양에 따른 투자비 회수 지연과 금융이자 부담 증가,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등이 그 이유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분양에 나선 평동 1·2차 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 37만3천276㎡(62필지) 중 분양된 부지는 2천400㎡(4필지)로 분양률이 0.64%에 불과하다. 50.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공장용지는 이미 가격 하락 등으로 부지

의 대부분이 분양됐으며, 단독주택용지도 27.6%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앞으로 지원시설용지가 분양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해 2.2~2.3%에 불과했던 금융권 금리가 올해부터 3.2%로 1%p 오르면서 시와 도시공사의 이자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시설 부지가격이 m당 60만원으로, 공장용지 20만원에 비해 3배 높은 공장용지나 물류용지로 바꿀 경우 분양수입이 1천812억원에서 830억원으로 급감, 시가 그 차이인 982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장용지로 전환 ▲물류용지로 전환 ▲공장용지+물류용지 전환 등 3가지 안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한 뒤 최우선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기침체는 물론 최근 세종시 논란 등으로 인해 평동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이 늦어지면서 지원시설부지가 거의 안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시 부담이 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족한 공장용지나 물류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향우연, 기상이변도 예측 첫 위성 발사

올 상반기 '아리안5' 라고 13일 밝혔다. 향우연에 따르면 통신해양기상위성은 고도 3만6천km 상공에서 기상관측, 해양관측 및 위성통신 서비스의 복합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기상청에서 활용하는 기상위성 영상은 일본의 정지궤도 위성(MTSAT-1R)으로부터 1시간에 2회 수신되는 구름영상과 미국 NOAA위성(저궤도)으로부터 1일 8회를 수신하고 있는 영상 정도다. /연필뉴스

### 무역수지 광주 '웃고' 전남 '울고'

2009년 광주·전남 지역의 무역수지는 광주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남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13일 광주세관이 '2009년도 연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수출은 전년보다 5.6% 감소한 88억8천300만달러, 수입은 16.2% 감소한 40억8천700만달러로 무역수지 47억9천6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품목별 수출은 수송장비(1.8%)의 증가를 제외하고 가죽, 고무 및 신발

빛의만평 - 김중두. A cartoon illustration with a person and a speech bubble, with the text '솔직히 요즘은 나도 헛갈린다'.

### 관광 기반시설 확충·영산강 관광자원 개발 전남도 올 1.191억 투입

전남도는 올해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영산강 주변 관광자원 개발, 생태농산물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1천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남권 6개 시군의 주요사업으로는 목포 해양음식분수대 48억원,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 20억원, 영암 준거변천사 야외전시장 26억원, 해남 폐광대철 관련 관육선 건조 21억원 등 24개 사업에 340억원이다. 동부권 6개 시군에는 여수 향일암 일출 명소와 10억원, 순천만 습지개발 126억원, 고흥 우주센터 발사 전

###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18일부터 참가자 접수

2010년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계설계·CAD 등 56개 직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4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광주공립고등학교 등지에서 개최되는 기능경기대회에는 만 14세 이상 건축 요소를 도입하고 향토 수종이나 상록수 식재, 친환경 자재 사용, 태양·지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홍석우중기청장 來光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14일 오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홍 청장은 이어 우리로공통신과 무진기원 등 생산현장을 방문,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장성군이 주최하는 장성아카데미에 참석해 특별강연도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분묘개장광고(2차) notice regarding cemetery openings and regulations.

대인동삼일부동산 notice regarding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국비/지원 전기소방 notice regarding government-funded electrical fire safety training.

손해사정사 notice regarding insurance claim assessment services.

citi 신용대출 notice regarding credit card loan services.